

## 2. 94 世界 競爭力 報告書

- 韓國의 國家 競爭力은 아시아 競爭國中 最下位로 轉落
- 國際化, 金融, 政府 部門의 脆弱性이 競爭力 低下의 主犯
- 自律 競爭을 促進하도록 企業·金融·貿易·外換 면에서 政府 規制의 緩和가 必要

### - 評價 方式

-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(IMD)은 최근 「94 세계 경쟁력 보고서」를 발표하였음.
- 동 보고서에는 국가별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국내 경제력, 국제화, 정부, 금융, 사회간접자본, 기업 경영, 과학 기술, 인적 자원 등 8 개 부문의 381 개 기준 항목을 설정하고 있음.
- 조사 항목들의 計量·非計量的 평가 방법에 의해 산정된 국가별 총점에 의해 41 개국(OECD 가입 23 개 선진국과 18 개 개도국)의 경쟁력 순위가 매겨짐.

### - 韓國 競爭力 아시아 競爭國中 最下位

- 41 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24위, 18개 개도국 중에서는 7위를 기록하고 있음.
- 특히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지난 1991년엔 開途國中 3위를 기록했으나, 1992년에는 대만, 말레이시아에 밀려 5위로, 작년에는 칠레에도 뒤져 6위로 밀렸고 올해는 태국에까지 뒤져 7위로 전락해 아시아의 경쟁국에서 꼴지로 처졌음.

### - 國際化, 金融, 政府 部門의 脆弱性이 國家 競爭力 弱化的 主犯

- 8 개의 평가 부문중 국내 경제력 분야에서만 높은 經濟 成長率 덕택에 상위권인 7위에 올라 있을 뿐이고, 과학 기술 부문과 노동력의 질을 나타내는 인구 부문은 각각 중간 수준인 18위와 20위에 머물고 있음.
- 반면 국제화, 정부, 금융, 기업 경영, 사회간접자본 부문 등에서는 거의 30위권 바깥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, 특히 國際化와 金融部門에서는 모두 3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함.
- 國際化 부문에서는 상품·서비스의 市場 開放 최하위를 비롯해, 외국인 차별 대우 2위, 외국과의 合作時 정부 간여도 1위 등 국내 시장의 閉鎖性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됨.
- 금융 부문에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꼴찌를 면치 못했는데 金融 自律性이 가장 떨어지고, 資本市場이 기업 발전을 가로막는데 으뜸, 國內 資本市場 開放에서 최하위, 資本 調達 費用이 4번째로 비싼 국가로 평가됨.

- 정부 부문에서도 정부의 각종 産業 規制로 공정 경쟁 저해가 4위, 기업 투자 시 정부 간섭이 최고, 정부의 價格 規制가 1위 등 정부의 기업 규제가 매우 심한 국가로 지적됨.

-示唆点

- 한국의 경쟁력 저하 요인은 한마디로 國際化와 自律化의 부진으로 요약됨.
- 따라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自律 競爭 基盤 위에서 장기적인 成長 潛在力을 배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.
- 인적 자원의 확충, 과학 기술의 개발, 왕성한 투자 의욕 등 競爭 要素를 기업들이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 규제, 기업 규제, 외환 및 무역 규제 등 각종 政府 規制를 緩和해야 할 것임.

(채 영 배)

<主要 競爭國의 競爭力 順位>

	國內 經濟力	國際化	政府	金融	社會間 接資本	企業 經營	科學 技術	人口	總點
싱가폴(2)	2	2	1	2	16	7	8	1	94.9
홍콩 (4)	4	3	2	3	17	4	20	18	86.4
말련 (17)	6	14	4	13	18	14	24	22	70.8
대만 (18)	5	17	11	20	27	21	15	19	69.4
칠레 (22)	23	16	7	19	21	16	26	24	63.9
태국 (23)	9	21	8	14	33	23	31	23	62.3
한국 (24)	7	39	30	39	29	29	18	20	53.0

주: 괄호내 수치는 41개 조사 대상국중 경쟁력 순위임.  
총점은 미국을 100.0으로 했을 때 각국의 경쟁력 평점임.